

8월 15일
광복 62주년

좋은 세상 오도록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3·1운동 참여한 104세 독립운동가 유정 스님

“이 먼데까지 뭐하러 와. 곧 죽을 늙은이에 게 뭐 들을 게 있다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 중 최고령 생존자로 알려진 유정(104) 스님(양평 용수사 주지·사진)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스님의 독립정신을 배우고 싶다며 1시간여 동안 간청을 드려야 스님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니들이 나라없는 슬픔이 뭔지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쫓겨...”

유정 스님은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며 타박부터 시작했다. 스님은 1919년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았던 유관순 열사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인물. 항일운동하던 오빠 한 명이 일본인 건물에 불을 지르다가 투옥된 뒤 식구들은 고향인 서울 종로구 적선동을 등지고 일본 경찰을 피해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이 와중에 유정 스님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던 천안으로 숨어들었던 것.

“사람들이 동천 마당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 그 때는 거기(아우내)를 동천이라 불렀거든. 가보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더라구. 내가 그 사이에 무슨 혁명투사나 독립투사였겠어. 아무 것도 모르고 끼게 된 거지.”

그러나 겸손이었다. 스님은 분명히 독립투사였다. 독립모임에서 자금책을 맡았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던 관계로 비교적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고 나이도 어려서 아버지의 후원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스님은 “일본 사람들 횡포가 많도 못했지. 순사들이 우리에게 장총을 겨누더니 그냥 막 씹어버리는 거야. 애 어른 할 것 없이 죄다 씹어 죽였어. 사람 목숨이 파리만도 못했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외모가 닮은 독립군 첩자로 오인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체포 과정에서 총탄에 정강이를 맞았고 투옥된 뒤에도 장기간 고문을 받아 온 몸이 만신창이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스무 살 무렵인 1920년대 중반 석방된 스님은 귀국해 금강산 수미암에서 병치료를 하

던 중 불가에 귀의했다. 은사는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높은 수행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응필 스님이었다.

이후 8.15 해방을 맞아 남하했고, 청주지역에서 등지를 틀다가 천진암 영통사에 자리를 잡았다. 영통사를 장건하고 한때 신도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주변 이교도 단체의 음해와 방해로 6년 전 이곳 양평 용수사로 옮겨왔다.

스님은 104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3.1 운동 당시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유관순 언니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만세삼창을 하는데 가슴 쪽 천에는 ‘내 나라를 빨리 내나라’ 라고 써어 있었어. 그것을 본 일본 순사들이 ‘저 여자가 주동자’라 하면서 잡아갔지...”

“죽어가거나 옥살이 하면서 나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피바람 사람만 살아 남았지. 그 때 독립 운동했던 투사들은 다들 힘들게 살다가 갔어. 나도 그 분들 사진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것이 죄스러워. 우리 국민들도 이제부터라도 생각들을 고쳐야 해. 세상이 잘못 됐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면 어쩌려. 좋은 세상 오도록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지. 안그래 기자야만?” 스님의 또렷한 음성에는 분명이 아직도 과거에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헌찬 기백이 서려 있었다. 스님은 광복절이

다가오자 얼마전에도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밤도 안넘어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출가 후 매일 부처님께 빌었지. 그분들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쉬게 해달라고 빌어야.”

양평/글·사진=김주원 기자

독립운동서 자금책 맡다 투옥 한 살 위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 만세” 외치던 일 ‘생생’ 출가 후 투사들 극락왕생 발원

스님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외모가 닮은 독립군 첩자로 오인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체포 과정에서 총탄에 정강이를 맞았고 투옥된 뒤에도 장기간 고문을 받아 온 몸이 만신창이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스무 살 무렵인 1920년대 중반 석방된 스님은 귀국해 금강산 수미암에서 병치료를 하

던 중 불가에 귀의했다. 은사는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높은 수행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응필 스님이었다.

이후 8.15 해방을 맞아 남하했고, 청주지역에서 등지를 틀다가 천진암 영통사에 자리를 잡았다. 영통사를 장건하고 한때 신도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주변 이교도 단체의 음해와 방해로 6년 전 이곳 양평 용수사로 옮겨왔다.

스님은 104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3.1 운동 당시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유관순 언니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만세삼창을 하는데 가슴 쪽 천에는 ‘내 나라를 빨리 내나라’ 라고 써어 있었어. 그것을 본 일본 순사들이 ‘저 여자가 주동자’라 하면서 잡아갔지...”

“죽어가거나 옥살이 하면서 나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피바람 사람만 살아 남았지. 그 때 독립 운동했던 투사들은 다들 힘들게 살다가 갔어. 나도 그 분들 사진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것이 죄스러워. 우리 국민들도 이제부터라도 생각들을 고쳐야 해. 세상이 잘못 됐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면 어쩌려. 좋은 세상 오도록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지. 안그래 기자야만?” 스님의 또렷한 음성에는 분명이 아직도 과거에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헌찬 기백이 서려 있었다. 스님은 광복절이

다가오자 얼마전에도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밤도 안넘어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출가 후 매일 부처님께 빌었지. 그분들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쉬게 해달라고 빌어야.”

양평/글·사진=김주원 기자



다가오자 얼마전에도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밤도 안넘어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출가 후 매일 부처님께 빌었지. 그분들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쉬게 해달라고 빌어야.” 양평/글·사진=김주원 기자

동국대 ‘가짜학위’ 신정아 파면

“학교 이미지 실추”로 징계

동국대가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박사 학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교수(사진)를 파면 조치했다.

동국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신씨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케 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주원 기자

“피랍 사태 평화적 해결 힘써달라”

조계종, 한국 미국 아프간 정부에 요청

조계종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프간,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8월 2일 대변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 종단은 무고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좀 더 지혜

롭게 탈레반과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아프간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 해결의 원만한 해결과 인류 평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태허 스님 유적지서 불자들 합장

운암기념사업회,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사)운암기념사업회(회장 민정진)가 “제2회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을 8월 7일 떠났다.

탐방단 70여명은 중국에 도착한 첫 날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상하이로 찾아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 의거지 흥구공원(현 노신공원), 송경련기념 등을 살폈다.

셋째날 둘러본 무한에는 운암선생(태허 스님)의 유적이 남아있다.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거점 지역이다. 김원봉, 유자명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단체에서는 ‘조선민족전선’이라는 기관지



를 발행했고, 운암 선생은 편지를 맡았다. 무한 운암 선생 유적지 앞에서 불자들을 주축으로 운암 선생이 아닌 태허 스님을 기리기 위해 합장하고 태허 스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사진) 중국/김강진 객원기자 <추우상보>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임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MI(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I Love Buddha / 발상의 전환

유정운(www.zentoon.com)



영통사만 다녀와야 성지순례?

천태종,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발언에 반박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영통사만 다녀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성지순례와 개성 관광은 별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천태종이 반박했다. 윤만준 사장은 8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죽교, 고려박물관 등 유적지 관광과 같은 관광 성격이 아닌 영통사만 다녀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성지순례는 개성관광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태종은 “재벌이 성지순례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험사업인 개성관광의 차이를 모르고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틀이 될 역사적인 사업을 이익만 생각에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태종은 불자들의 성지순례의 방문횟수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에 반발, 주 3회 각 500명씩의 성지순례 인원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95% 최상선 011-253-3747

김원우 기자

성불 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예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동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은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